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목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맡아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

성경: 행 13:23, 32-34, 38-39, 롬 1:3-4, 8:29

- I.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나신 구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로 이끌어 오셨는데, ...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 행 13:23, 32.
- A. 사무엘기하 7장 12절에 언급된 다윗의 씨는 사실상 하나님의 맡아들이신 그리스도이다(삼하 7:14, 히 1:5-6). 이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시며, 솔로몬으로 예표되신다.
- B. 사무엘기하 7장 12절의 ‘네 씨’와 14절의 ‘나의 아들(영어 회복역 참조)’에 관한 말씀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임을, 곧 사람의 씨가 신성한 아들이 될 것임을 함축한다.
1. 이것은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에 관해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한 말과 일치한다.
  2. 이 절들은 사람의 씨, 곧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한다.
    - a. 신성한 분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씨, 곧 사람인 다윗의 씨가 되셨다.
    - b. 이 씨는 하나님-사람이신 예수님이셨으며, 그분은 오직 그분의 신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 눅 1:35.
    - c. 사람의 씨이신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 II.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 — 행 13:33.
- A.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본다.
- B. 부활은 사람 예수님께 일종의 출생이었다.
1.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맡아들이 되셨다 — 롬 8:29.
  2. 그분은 영원부터 독생자이셨다 — 요 1:18, 3:16.
  3. 육체가 되신 후 부활을 통해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맡아들이 되셨다 — 히 1:6.
- C.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하는 시편 2편 7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

1. 바울은 ‘오늘’이라는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했다.
  2.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임을 의미한다.
  3.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곧 그분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이었다 — 행 13:33.
- D.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성을 입으셨고 하나님-사람이 되셨다(요 1:14, 18, 눅 1:35).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행 13:33, 히 1:6, 롬 8:29).
1. 육체 되심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간 본성을 갖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신성한 본성만을 가지셨다.
  2.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신성한 본성뿐 아니라 인간 본성도 갖고 계신다.
- E.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 벰전 1:3, 히 2:10.
1. 이 많은 아들들 중에 오직 맏아들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 요 1:18, 요일 4:9.
  2. 이 독생자는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기도 하시다 — 롬 8:29.
  3. 맏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서 인간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둘 다 소유하고 있다 — 벰후 1:4.
- F.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1:18, 3:16),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았다. 그보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
1. 독생자이신 주님은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시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신 것을 강조한다 — 요 1:4.
  2.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을 번식시키기 위해 생명을 분배하는 분이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 롬 8:29.
  3. 먼저 그리스도는 생명의 체현이신 독생자이셨고, 이제 그분은 또한 생명의 번식을 위한 맏아들이시다.
  4.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모든 믿는 아들 안으로 분배되어, 그분 안에 체현된 생명의 번식을 산출했다.

III.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 — 행 13:34.

- A.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다.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행 13:33-34.
- B.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씨로부터 그러한 분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 롬 1:3-4.
- C.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신성한 칭호, 곧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이다.
- D. 이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생명, 빛, 은혜, 의, 거룩함, 생명의 떡, 생수, 능력, 지혜, 영광, 하

- 나님의 깊이들, 머리, 몸, 첫 열매, 둘째 사람과 같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든 방면들이다.
- E. 거룩하고 신실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공훈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 사 55:3, 대하 6:42, 시 89:1.
- F.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로 주신 모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심을 보아야 한다. 이분이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전파한 그리스도였다.

**IV. “바로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 행 13:38-39.**

- A. 죄들이 용서받는 것은 부정적인 방면과 관련되며, 우리가 유죄 판결에서 해방받기 위한 것이다 — 행 13:38.
- B. 의롭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방면과 관련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것이다 — 행 13:39, 갈 2:16, 롬 3:24-25.
- C.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분’을 두 번 언급했다.
1. 이분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맏아들과 우리의 구주와 많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 되신 분이시다.
  2. 맏아들과 구주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신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분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된다.
  3. 우리는 이분에 의해 죄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데, 이분 자신이 우리가 받은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시다.
    - a.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은 둘 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공훈들이며, 이러한 공훈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이다 — 행 13:33-34, 38-39.
    - b.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시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부활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심**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더욱이 로마서 8장 29절은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언급한다. 이 두 절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신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도 하나의 출생이었다. 그러나 그 출생은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 뿐이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에, 곧 그분이 육체 되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삼일—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며, 셋 모두 영원하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사 9:6), 아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히 7:3), 영 하나님이 영원하시다(9:14).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학자들은 때때로 영원을 설명하기 위해 원을 사용한다. 원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원 위의 어떤 점이 다른 점 앞에 오는지 아니면 뒤에 오는지 말하기가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영원하셔서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셔서, 생애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으시다고 말한다. 성경의 계시는 아버지께서 아들 전에 존재하셨다고, 아들은 아버지 후에 생겨나셨다고, 그 영은 아들 후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셋 모두가 영원하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다. 그러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약 이천 년 전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그 출생에 의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육체 되심은 그분의 첫 번째 출생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께 두 번째 출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첫 번째 출생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두 번째 출생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한편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음을 지적한다. 또 한편으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두 방면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첫 번째 방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고, 두 번째 방면은 그분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은 믿는 이들이 독생자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된다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독생자와 맏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선뜻 독생자는 형제가 없는 사람, 맏아들은 많은 형제가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대답할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게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영원 과거의 하나님의 독생자와 부활 안의 하나님의 맏아들의 차이점은, 육체가 되시기 전인 영원 과거에 그분께는 인성이 없고 신성만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 되심의 과정을 통해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다. 그분은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고, 부활 안에서 나오셨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신성에 따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언가 더해진 것이 있었다. 그분은 육체 되심을 통해 얻으신 인성을 또한 소유하셨다. 육체 되심 안에서 그분이 입으신 인성 또한 아들의 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 안으로 이끌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부활이 그분의 인성을 ‘아들화’하여 그분의 인성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출생으로서 그분을 신성이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있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두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실 뿐이라면, 그분께는 어떤 형제들도 없으실 것이다.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로 얻으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인성을 소유하셔야 한다. 그러나 영원 과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은 인성이 없이 단지 신성만을 소유하셨다. 그러나 육체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 인성을 아들의 자격 안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는 많은 형제들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생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결코 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날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을 때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벰전 1:3). 부활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출생하셨고, 동시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출생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선민 모두가 부활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생했다. 이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만이 그분의 독생자이다. 하나님의 이 독생자는 그분의 부활한 인성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믿는 이들인 우리, 곧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도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갖고 있다(벰후 1:4).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롬 8:29).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49-52쪽)*

###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전진된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 33절과 34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33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산출한 그분의 두 번째 출생이었음을 말해 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이분은 다윗의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다.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씨로부터 그러한 분을 일으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구주이시다. 더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시고, 이 선물의 이름은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다.

여기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헬라어는 복수형이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다음 절에서 ‘거룩한 분’으로 사용되지만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가 아니며, 히브리어 ‘헤세드’에 해당하는 헬라어이다. 그 단어는 <칠십인역> 과 <흠정역> 모두의 경우, 이사야서 55장 3절, 역대기하 6장 42절, 시편 89편 1절에서 ‘궁홀들’로 번역되어 있다. 시편 89편 1절에서 복수형인 ‘궁홀들’에 사용된 단어와 18절에서 단수형인 ‘거룩한 분’에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다. 이 거룩한 분은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궁홀들이 그분 안에 집중되고 그분 안에서 전달된다. 그러므로 다윗의 거룩한 것들과 신실한 것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은 문맥에 의해, 특히 다음 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과 이사야서 55장 3절 하반절로 충분히 증명된다.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은 매우 깊다. 두 번째 출생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다. 34절에서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신뢰할 만한’을 뜻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다. 여기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우리의 구주만이 아니시고, 단지 하나님의 맏아들만이 아니시라고 말한다. 부활하신 이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은 이해하기가 쉽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것은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렵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

심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넓은 범위를 다룬다. 이 범위는 '구주'와 '말아들'이라는 칭호가 다루는 범위보다 훨씬 더 넓다.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신성한 칭호, 곧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이다. 이 절들에서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라고 불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부터 일으키신 구주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 되셨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든 방면들이다. 신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생명, 빛, 은혜, 의, 거룩함,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 하심 등이시다. 그분은 또한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이시다. 더 나아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들, 곧 능력, 지혜, 의, 거룩하게 하심, 구속, 영광, 하나님의 깊이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유일한 기초, 유월절, 무교병,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식, 머리, 몸, 첫 열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목자와 풀밭과 같은 그리스도의 더 많은 방면들을 볼 수 있다.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부활하신 분인 그리스도는 말아들과 구주와 거룩하고 신실한 모든 것들이시다.

구약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은 공훈들로 간주되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훈들'을 언급한다. 역대기하 6장 42절은 주님의 종인 '다윗의 공훈들'을 언급하고(흠정역 참조), 시편 89편 1절은 "내가 여호와와의 공훈들을 영원히 노래하며"라고 말한다. 공훈은 사랑과 은혜를 함축하지만,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미친다. 사랑과 은혜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도 공훈은 도달할 수 있다. 거룩하고 신실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공훈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생명은 공훈이다. 빛 또한 공훈이다. 마찬가지로 의, 거룩함,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도 공훈들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문과 풀밭과 목자를 보는데, 이 모든 것이 공훈들이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러한 공훈들의 모든 방면을 세어 본다면, 공훈들의 긴 목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우리에게 공훈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이다.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공훈이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남편에게 공훈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마찬가지로, 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그것 또한 공훈이다. 그녀의 복종은 그녀에게 공훈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우리가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내도 고갈되지 않는 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공훈이 되시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훈의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내는 것이 공훈일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사랑스러운 구주께서 우리의 말함이다. 우리의 말함은 그리스도이며,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훈이다. 비록 우리가 말하는 것이 유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내는 것에서 우리에게 공훈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신실한 모든 것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공훈들이심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였다. 바울은 그의 복음 메시지에서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뿐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복음 전파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정의하려면,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보기 원한다면, 바울의 열네 서신서를 연구해야 한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뛰어난 본을 세웠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의 본을 따라야 한다. 바울처럼 우리도 풍성하고 높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

**그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 전파되며**

### 그분 안에서 믿는 이들 모두가 모든 일에서 의롭게 됨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들이 용서받는 것(38절)은 부정적인 방면과 관련되며, 우리가 유죄 판결에서 해방받기 위한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것(39절)은 긍정적인 방면과 관련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 모두에서 바울은 ‘이분’을 언급했다. 이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맏아들과 우리의 구주와 거룩하고 신실한 많은 것들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들이 되시는 분을 통해 우리는 죄들을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 맏아들과 구주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신 이분을 통해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이전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이분 안에서 의롭게 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분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이분 자신이 우리가 받은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시다.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은 둘 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긍휼들이며, 이러한 긍휼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이다. 오늘날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은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시다.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을 그리스도와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들이신 그리스도의 방면들이며, 이러한 긍휼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다. 분명히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확실히 그것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죄들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보다 그것들은 거룩하다. 더 나아가 신실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만하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2995-2999쪽)*